

“학생회 선거, 제주지역 기성정치의 축소판”

기획 학생회 선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끝> 스폰서 선거

전 학생회 간부의 고백... “혼탁해진 건 기성세대도 책임”

일각선 “학생회가 기성정치 입문 위한 ‘감투’ 여신 안돼”

“제주대 학생회 선거는 제주지역 기성정치의 축소판이에요. 기성정치권 인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가르치며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학생회 선거가 더러워진 건 제주지역 기성정치인들의 책임이 커요.”

대학에 다니며 학생회 간부(幹部)를 다년간 해왔던 A씨는 요즘 학생회 선거문화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물론 순수한 의도로 학생회 간부를 하려는 학생도 많지만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려는 이들 때문에 선 거문화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 등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던 소위 ‘인사이드’였다.

“학생회 선거가 혼탁해진 건 ‘금권 선거’도 중요한 원인이지, 그렇게 금권선거로 변해버린 탓은 아마도, 기

성정치와 기성세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의 증언 따르면, 최근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이른바 ‘스폰서 선거’가 행해지고 있다.

스폰서는 본디 ‘행사나 운동 경기, 자선 사업에 기부금을 내어 후원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대학 선거에서 스폰서는 순수하게 이뤄지지 않아 스폰서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야 한다.

기성 선거에서는 후원자들이 기금을 마련해 후보자의 선거자금에 마련한다. 그는 “이처럼 학생회에 출마하는 일부 학생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후보자들이 종종 있다”며 “동문회를 빌미로, 졸업하고 이미 유력 기성정당의 청년회장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동문회 일일호프 등을 핑계로 현 대학 내 동문회 회장과 만나게 되고 후보자들과 이들은 식사, 술 접대 등을 통해 ‘핫라인’(hot line)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 이후 후보자들은 자연스럽게 기성 정치세대들과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선거 전략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수도 똑같았어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밥과 술을 사기도 했죠. 혼탁한 다른 기성정치인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종의 관계형성을 통해 일부 학생회 선거 출마자들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기성정치인사들이 얻는 것은 대학생, 20대 청년들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축적 ‘일 굴마담’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성정당에서는 A가 되면 B가 되면 누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소위 색깔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지방선거 때, 다음 총선 때, 20대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역할로서 ‘총학생회장’ 자리에 앉히려 하고 할 뿐입니다”

그는 “학생회 간부를 하려는 일부 학생들을 보면 인맥을 쌓아 취업하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과거 어떤 총학생회장들은 실제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지지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 취업도 못해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못한 총학생회장들도 몇몇 있죠”

이에 대해 일각에선 “좁은 제주지역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응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거문화 관행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강봉수(윤리교육과) 교수는 “학생회가 대학, 학생, 나아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기성정치 입문과 취업을 위한 ‘스펙’과 감투로 전락한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런 후보자들이 정치권에 출세하고 지원을 받는 잘못된 학생회 선거문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13일 오후 5시 이후 총장임용후보 확정

추천위원 48명 정책토론회·합동연설회 후 투표

직선제 폐지 이후 13일 첫 공모제로 치러지는 제9대 총장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장추천관리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총장 후보자(가나다순)는 △고영철 사회과대학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두철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김중훈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양영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허창진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12일 단과대학과 대학원 등 17개 지정 기표소를 통해 학내 총장임용 후보자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투표

와 추천이 이뤄졌다. 여기서 다득표자 순으로 각 대학(대학원)별 추천위원이 된다.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5명 이상의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또 학외위원은 추천을 요청받은 기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밀봉해 추천관리위원회가 제출받았다.

13일 오전 7시부터는 학내위원 선정 기표장 개표와 학외위원 선정 추첨이 이뤄지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선정된 추천위원에게 전화 통화를 한다. 만약 최다추천을 받은 학내위원이나 추천위에 의해 추첨된 학외위원이 전화연락이 안되거

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2순위, 3순위 득표자 혹은 재추천으로 학내 36명, 학외 12명 등 48명의 추천위원이 최종선정된다.

이들 추천위원들은 13일 오후 1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총장 선거에 공모지원한 5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를 참관한 후 오후 5시부터 표결을 통해 최종 1·2순위 후보자를 결정한다.

재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명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 2위로 선정된 2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결정한다.

2014 총학생회 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대동제 개선에 한목소리

주요공약 설명도 이어져

2014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하영Dream’ 선거운동본부와 ‘진짜’ 선거운동본부가 참가한 가운데 5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동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하영Dream선본은 “과도한 예산사용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축제준비진담팀을 구성해 총학생회가 직접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엔에인 섭의는 재능기부를 하는 가수나 질 높은 공연을 하는 가수들을 발 벗고 찾아 예산을 줄이는데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짜선본은 “대동제에 많은 돈을 들이지만 학생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축제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즐기는 축제가 됐으면 하고, 유니브엑스포처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호응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평의회 의결권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하영Dream선본은 “자체 드림센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의회 의결권 확대



5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정책토론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훈 총대의원회 의장) 주최로 열렸다.

독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나갈 것”이라고 했고, 진짜선본은 “학생들의 평의회 참여는 중요한 문제로서 당선된다면 의결권을 꼭 갖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에서 하영Dream선본은 “학생회관 내에 드림센터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학내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알차 정보들을 이곳에서 제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짜선본은 “동문들의 기부참여로 이뤄지는 디어(dir) 장학금이 등으로 정작 공부에는 소홀히 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생회 예산활동 문제, 총여학생회 존재 문제, 버스노선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강수빈 기자

입시설명회 22일까지... “우수 신입생 유치에 최선”

단과대학별 입시상담, 홍보대사 공연, 출신 고교 선배와의 만남 등 다채롭게 진행

17개 도내 고교 참가

제주대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17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도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벌이고 있다.

이번 입시설명회에는 지난해 보다 5개교가 늘어난 17개 고교가 참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대 입학에 대한 도내 고교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홍보 동영상 상영 △제주대 교육여건과 2014학년도 정시 주요사항 안내 △홍보대사 공연 △단과대학별 일대일 입시상담 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학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출신 고교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후배 학생 유치와 함께 대



지난 12일 아라무즈홀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서 한 학생이 단과대학별 일대일 입시상담을 받고 있다.

학생들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시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 남주고·서귀고·삼성여고·서귀여고 △12일 세화고·한림고

고 △13일 사대부고·신고 △14일 오고 △15일 제주여고·대기고 △18일 대정여고·중앙여고 △19일 일고 △20일 남녕고 △22일 대정고·표선고

계절학기 수강신청

20일부터 3일간... 최대 6학점

2013학년도 동기계절수업 수강신청이 오는 20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수강신청은 하영Dream(학사정보서비스)에서 신청기간 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계절수업은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다음달 9일부터 9일내에 납부해야 한다. 수강신청(전산입력)을 한 학생이 지정된 기일인 다음달 17일 오후 4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이번 동기계절수업은 수강신청자가 21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 설치되며,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수업이 폐강될 수 있다. 문의=학사과(754-2023-4)

2014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 모집

제주대가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

1.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내외 연구비 또는 장학금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2.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유수대학 학점교류 지원(유럽, 미국, 일본 등)
3.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G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4. 제주도 풍력실증사이트에서의 현장연구
5. 24시간 개방 S/W 구축 대학원생 전용강의실 운영

당신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 ▶ 원 서 접 수 : 2013. 11. 19(화) 10:00 ~ 11. 22(금) 17:00
- ▶ 접 수 처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 ▶ 선 발 방 법 : 필기 및 면접고사
- 필기고사 : 2013. 12. 13(금) 10:00 ~ 13:20
- 면접고사 : 2013. 12. 13(금) 15:00 ~
※ 출신학과 관련 없이 지원 가능
※ 공인 영어성적 우수자 우대(면접시 제출)
- ▶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 ▶ 모 집 학 과 :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 졸업 후 진로 : - 한국남부발전,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취업(풍력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 문 의 처 :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754-2045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행정실 754-4400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홈페이지 <http://gwe.jejunu.ac.kr>

신재생에너지 답은 풍력발전입니다

육·해상풍력에 특화된 석·박사 인재양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시작됩니다.

사설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날을 맞아

드디어 오늘 우리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가 확정된다. 5명의 교수가 10월 30일까지 공모지원자로 신청했고, 지원자 모두 공모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5일에 총장후보자로 확정됐다. 그리고 각 후보자의 열띤 홍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까지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와 추천이 마무리됐고, 바로 13일 오늘 확정된 48명의 추천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벌인 후에 표결을 통해 최종후보 2인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4인의 후보자가 특정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가 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가 하면, 특정 후보는 자신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가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교수, 학생회 간부, 기성회 이사 등에게 발송됐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잡음이 있긴 했지만, 과거 직선제 때와 견주어본다면 대체로 차분한 가운데 관련 일정이 진행됐다는 게 중평이다.

이제 오늘 추천위원들의 표결과 그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밤낮없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5인의 후보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대학발전에 헌신하려는 5인의 후보자 같은 교수들이 있는 한 우리대학교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각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다. 어느 누가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이밖에 제시된 다른 후보의 좋은 공약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리 차분한 가운데 총장추천 일정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결을 벌이는 과정을 치르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고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후유증도 신속하게 치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는 이번 추천 과정을 싸움이 아니라 우리 대학교의 꿈과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겨룸이요, 아름다운 축제였다고 여기고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최종임용후보로 선정된 후보자는 타 후보 정책에 대한 열린 수용, 논공행상을 배제한 탕평인사 등으로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의 결과는 모두가 겹쳐히 받아 들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에 하나 지난 2009년 5월 이후 약 10개월 동안의 총장공백 상태가 있었던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면 절대로 안 된다. 모두의 애교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학생회는 기성세대 비판자가 돼야 한다

한 때 학생회는 자치조직으로서 학생의 권리와 복지를 대변하기 보다는 사회적 참여에 중점을 두었었다. 대학 사회 전체가 정치화 되어 있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학생회와 학생대중의 간극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민주화 이전, 그리고 민주화 직후 아직 독재정권의 유산이 분명하게 남아 있을 때 정치적 학생회는 대학사회의 여론, 나아가 사회전체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제도적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정치적 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괴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회는 점차 학생들의 권리, 복지, 자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또한 과잉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에 있었다. 학생의 권리, 복지, 자치 그 자체는 항상 정치적인 사안들이었다. 민주화 이후 불어닥친 대학과 학문의 상업화에 저항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해야 할 때 학생회는 급격히 '비정치적인' 길로 접어들게 된다. '과잉된' 정치화에 대한 경계가 '비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된 것이다.

하지만 '비정치적인' 것의 표방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민주적인 토론과 날카로운 비판의 무기를 거두어들이는 편계가 '비정치적' 이라면, 그것은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2013년 제주대 총학생회는 금권과 관권, 그리고 권당에 의해 좌우되는 제주 정치를 비판하고, 학문적 공헌형성보다는 실적

과 경쟁 중심의 문화를 강요함으로써 대학공동체를 질식시키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회, 대학생 정치는 실망스럽게 그치지않다. 본보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되었듯이 학생회선거는 기성정치권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아니 흉내 내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학생회 간부 스스로 돈을 쓰지 않으면, 인맥을 동원하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뚜렷한 경전의 차이와 활발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밥과 술을 누가 더 많이 사주는지, 누가 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전체가 모두 참여하여 퇴색해가는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토론, 소통, 비판 문화를 되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 소통과 토론을 위한 자원과 정보를 모든 학생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불행하고 지금의 학생회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을 촉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학생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비판적 목소리로 모아내는 것이 학생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을 때 학생회는 대학과 교수들을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비판과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대의 공론은 제주사회의 여론을 선도하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 개선 필요한 제주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기능 떨어지는 데다 콘텐츠는 매우 빈약
정보통신원 “문제점 등 검토 후 개선할 것”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지 만 2년이 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아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원은 U-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아직도 2012년 학사 일정만 올라와 있고 올해 일정을 조회할 수 없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영드림미에 접속해서 교수 계획서를 확인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영드림미에 접속해 교수계획서를 내려 받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간호대학의 한 학생은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원래 마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해양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입학 당시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지만 딱히 편리한 기능도 없고 용량과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삭제해서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

인 기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건물 위치를 잘 몰라 애플리케이션 캠퍼스 맵 기능을 자주 활용한다는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캠퍼스 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데 인터넷 연결이 힘든 상황이 있다”면서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건물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법대학의 또 다른 학생은 “다른 대학의 애플리케이션은 빈 강의실을 알려주는 기능과 교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고 들었는데 우리대학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일 개선요구가 있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Back	학사일정
2012. 01	1. 16(금) ~ 1. 18(수)2012학년도 전과 신청기간
2012. 02	2. 3(금)2012학년도 전과 허가자 발표 2. 6(월) ~ 2. 10(금)201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 2. 20(금)2011학년도 전기 학원수업시(56회)
2012. 03	3. 1(목)2012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 전과·제일학 허가 3. 1(목) ~ 3. 30(금)제1학기 휴학 신청 기간 3. 5(월)제1학기 개강 3. 5(월) ~ 3. 9(금)제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기간 3. 5(월) ~ 4. 3(목)제1학기 복학 신청 기간
2012. 04	4. 3(목)제1학기 수강료수 만료일 4. 6(금)제1학기 수업료수 50% 4. 16(월) ~ 4. 20(금)제1학기 중간시험 기간 4. 25(수)제1학기 수업료수 100%
2012. 05	5. 11(금)제1학기 수업료수 100%
2012. 06	6. 11(월) ~ 6. 14(목)제1학기 보강수업 기간 6. 11(월) ~ 6. 15(금)교과대학 제1학기 보강수업 기간 6. 15(금) ~ 6. 21(목)제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8(월) ~ 6. 22(금)교과대학 제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21(목)6. 22(금)제1학기 종강 6. 22(금)학기 방학 6. 25(월)학기제보수업 개강
2012. 07	7. 13(금)학기제보수업 종강
2012. 08	8. 6(월) ~ 8. 10(금)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8. 24(금)2011학년도 후기 학원수업일 8. 27(월)제2학기 개강, 제일학 허가

대학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대 모바일에 2012년 학사일정만 올라와 있다.

통역번역대학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12월 2일까지 한영·한독·한중·한일과 등 4개 학과

통역번역대학원(원장 허윤덕)이 오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한영과, 한독과, 한중과, 한일과 등 4개과다. 인원은 일반전형 22명, 특별전형(외국인) 약간명이며, 학과별 인원은 약간명이다.

전형일정은 전공외국어 필기시험(번역·작문·청취)과 면접은 12월 17일, 합격자 발표는 12월30일, 등록

기간은 2014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는 2014년 2월 12일이다.

시험과목별 배점은 전공외국어점수 300점(번역·작문·청취)과 면접 100점 등 합계 400점이다.

입시절영 및 공개강의는 11월 15일 동시통역실(본관 우체국 2층)에서 실시한다. 문의=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064-754-2431, 2437).

기초교육원 아라토론대회 30일 개최

15일까지 참가 접수… 최우수상 2팀에 총장상과 50만원

아라토론대회 참가자 모집이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학부 재학생 3명이 1팀을 이뤄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해 우수자를 가리게 된다. 대회는 오는 30일 교양강의동에서 열린다.

신청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1부와 논술문 1부를 작성해 홈페이지로 제출하거나 기초교

육원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해외자본을 통한 제주도 개발’ 등의 주제에 대해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후, 본선진출 팀을 선정한다.

토론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2팀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문의=기초교육원 (전화 754-8265)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직무대리 신동범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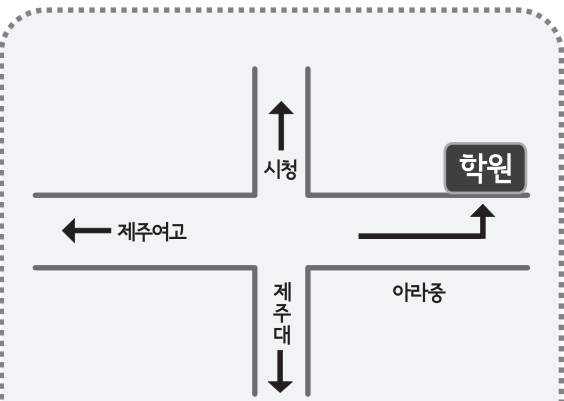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 국립제주대학교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3.10.14.(월) 10:00 ~10.17.(목) 17:00	2013.11.19.(화) 10:00 ~11.22.(금) 17: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첨부제출 서류 (우편, 택배, 방문)	2013.10.14.(월) ~10.22.(화) 18:00	2013.11.19.(화) ~11.27.(수) 18:00	· 제출처 : 우)690-756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토·일요일은 휴무 · 제출서류 미비시 불합격처리
실기고사 (음악학과)	2013.10.29.(화) 10:00~		· 장소 : 음악관
필기고사		2013.12.13.(금) 10:00~	· 장소 :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면접고사	2013.10.29.(화) 10:00~ 2013.10.29.(화) 14:00~	2013.12.13.(금) 15:00~	· 장소 : 학과사무실 · 장소 : 음악관, 미술관
합격자 발표	2013.11.18.(월) 예정	2014. 1. 10.(금)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개별통지 안함

- ※ 1.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은 일반전형으로만 모집합니다.
- 2. 특수대학원(교육·경영·행정·산업·사회교육대학원) 및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각 대학원별로 실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전 화 : 064-754-2045 홈페이지 : <http://ibsi.jejuu.ac.kr>



대학 건물안내 30여곳 ‘오류’… 방문자들은 혼란

건물 안내도를 보고도 못 찾아가는 경우 많아

총무과 “건물 많아 실수 발생… 민원 오면 바로 시정기로”

대학 건물 안내판 30여곳이 잘못 표기돼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최근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학습교재를 습득했었다”면서 “생물학과라고 적혀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주려 자연과학대학 1호관을 찾았으나 건물 안내도에서 생물학과 사무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호관에도 생물학과 학과 사무실 표지판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생물학과 사무실은 1호관에 있었다. 건물 안내도에는 ‘생물학과 사무실’이 아닌 ‘학과 사무실’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는 “선의로 한 행동이었는데 헛수고만 한 기분이었다”며 “건물 안내도를 보고도 찾을 수 없다면 안내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연과학대학 1호관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가 안내도에 나타나있지 않다. 2층에는 생물학과 사무실이 ‘학과 사무실’로만 표기돼 있는가 하면, 생

물학과 학생회실이 ‘생물학과 학생 독서실’로 표기돼 있다. 3층에 있는 제주해조산업RIS사업단실과 제주조릿대산업RIS사업단실, 4층의 관광상품개발실도 안내도에 쓰여 있지 않다.

자연대 2호관 안내도에는 지하 1층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와 WISE(현 WISET) 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가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 없다. 반면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는 입구 안내도에는 표기돼 있지 않다. 청소년 희망센터 교육지원팀 자람숲도 안내도에는 표기돼 있지 않다.

공과대학 1호관 3층의 LINC 사업단 단장실도 안내도에 나와 있지 않다. 3호관 1층의 창업지원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청소년희망센터·증강현실연구개발센터와 2층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단 또한 표기돼 있지 않다. 4호관 2층의 산학협력실과 4층의 엽센터도 안내도로 찾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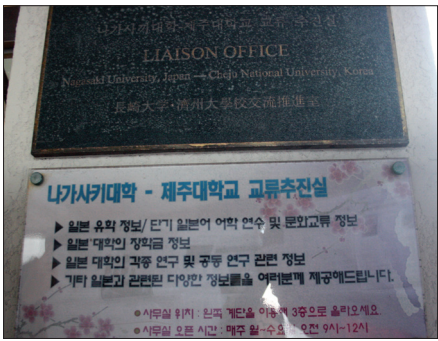
해양과학대학 1층 제주시·서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WISET 제주지역사업단·오픈지스쿨, 2층 학생회사사무실, 4층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안내도에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 2층의 제주승마산업RIS사업단실이 건물 입구 안내도에 표기돼 있지 않다.

사범대학 안내도에 따르면 과학영재교육원 행정실은 1호관에 있고, 관련 풋말들도 1호관 입구에 붙어 있었으나 실제 과학영재교육원 행정실의 위치는 2호관이다. 사회과학대학 안내도의 1층 (야)법학부 위치에는 대의원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3층 사회과학연구소의 위치가 잘못 표기돼 있다.

경상대학 1호관의 3층 관광디자인실과 2호관 1층의 GTEP강의실(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안내도에서 찾을 수 없었다.

잘못된 건물 안내도는 단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대학의 얼굴이라할 만한 본관건물도 안내도상의 위치와 차이가 있다. 1층 소회의실은 현재 대학원 행정실로 쓰이고 있다. 2층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안내도



본관에 있었던 나가사키대학 교류추진실이 없어졌지만 안내판은 아직도 있어 방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표기상에는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3층에 표기된 나가사키대학 교류추진실의 위치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장실이 들어서 있다.

잘못된 풋말 또한 방문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무실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는 풋말에는 “3층으로 올라오라”고 적혀 있지만 현재 3층에는 나가사키대학 교류추진실이 없다. 사무실 연락처 또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건물이구나 구조가 바뀔 때마다 건물 안내도를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교내의 건물이 많아 실수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총여·총대 정책토론회 열려

총여 존재목적 질의에 “여성의 권리신장과 여성 복지 위해 필요”

“대의원이 아닌 부학과대표도 봉사 공로 인정해야”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1시에 각각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7일 열린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는 단독 입후보한 ‘여기부터’ 팀의 공약사항 발표 및 패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병선 총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승원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는 “근본적인 총여학생회의 설립 목적은 남녀차별을 완화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며 “제주대에 총여학생회가 생긴지 어느덧 30년인데, 남녀 차별 관련 문제는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유지하고 기존 학교생활에서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여학생회 집행부들과의 소통, 4·3

팔찌 제작 정책 관련 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는 ‘우선순위’ 팀의 정책 발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훈, 이하 중선위) 위원장 및 패널들의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고명찬 총대의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는 “잘못된 선거문화의 개선, 선거비용 절감 등을 실행하는 것이 총대의원회의 역할”이라며 “총대의원회는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기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에 대해 지정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유병선 총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마다 대의원실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경우엔 복합기 설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명찬 정입후보자는 “대의원



지난 6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총대의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실 공간 문제는 행정실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의원실이 없다고 복합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실을 같이 쓰는 경우라도 복합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훈 부총학생회장은 “후보자들이 보는 정책토론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물었다.

고현우 부입후보자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자리를 차지한 점이 아쉽다”며 “당선이 된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본부 참관자들의 수를 줄여갈 것이다. 또 서로간의 비난이 아닌 의견 교환 장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단과대학별 선반방 제공 문제, 예산 분배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신윤정(해양산업경찰학과 2)씨는 “부학과대표는 대의원 소속이 아니다”라며 “부학과대표 또한 학과를 위해 봉사하는데 혜택도 없고 그의 위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의견을 물었다.

고현우 부 입후보자는 위 사항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라며 “당선이 된다면 학과대표 권위신장뿐만 아니라 부학과대표들에게도 많은 권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대답했다.

강수빈 기자

양채류 사업단 식품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제품 개발방향 및 사업단 제품의 도내외 유통방안 모색

제주양채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은 지난 5일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된 ‘2013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업지원사업 소개 및 상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회에서 제주양채류RIS사업단은 제주씨푸드RIS사업단·제주본초RIS사업단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제주산 양채류(브로콜리, 양배추)장아찌, 양배추를 첨가한 우영발 떡갈비, 몸에 좋은 케일선식 등 제주산 양채류 등을 활용해 개발한 사업단 제품들을 전시 홍보했다.

또 사업단의 기업지원사업 소개와 학회

에 참석한 기업체들과의 상담을 통해 제주산 양채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방향 및 사업단 제품들의 도내외 유통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도내 식품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식품자원의 명품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식품연구원 박형우 박사의 ‘한중 FTA, 제주도에는 기회인가 공멸인가’ △제주본초RIS사업단, 양채류RIS사업단, 제주씨푸드RIS사업단의 ‘제주 식품자원의 명품화 사업과 발전방안’ 강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학과 취업캠프 8일부터 이틀간 열려

무역학과(학과장 이용완)는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 현길호)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무역인력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2013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성공취업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제주대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6·7기 요원과 무역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제자 성폭행 파문 인문대 K교수

교수직 자진 사퇴… 의원면직

최근 제자 성폭행 논란을 빚었던 인문대학 K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놨다.

K 교수는 지난 1일자로 대학에 사퇴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교무과 관계자는 “본인의 청에 의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2013 제주 지능로봇 경진대회 10일 열려

사라캤퍼스 체육관서… LINC사업단·메카트로닉스학과 등 주관

‘2013 제주 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지난 10일 사라캤퍼스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주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 LINC사업단이 주최하고 제주대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제주로봇연구회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및 대학·일반부 등 5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 종목은 초등부 △감굴나르기 로봇 △로봇 PushPush △캐리어로봇 △스피드 스태크, 대학·일반부는 △Off Load Line Tracer이다.

감굴나르기 로봇부문에선 강동호·고호태·홍준원(백목초)가, 로봇PushPush에서는 김지운(화북초)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양지웅(교대부속초)은 캐리어로봇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스피드 스태크

부문에서는 박혁준(중앙초)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대학·일반부 Off Load Line Tracer에서는 강형규·성민건(메카트로닉스공학과)가 대상을 탔다.

시상은 종목별로 이뤄졌다. △대상은 제주대 총장상 △금상은 제주대 공과대학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장상 △은상은 제주대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장상, 제주로봇연구회장상 △동상 제주대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장상, 제주로봇연구회장상 △장려상 제주대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장상, 제주로봇연구회장상이다. 종목별 대상 학생 지도교사에게 제주대 총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로봇에 대한 관심 증진하고 로봇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의·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전화 754-3710)



자연과학대학(학장 김세재) 제5기 생활과학지도자과정(회장 이봉만) 과정생 70여명은 지난 9일 제주시 남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장옷놀이, 합동출발기, 2인1각 이어달리기 등 체육활동과 노래(장기)자랑, 막춤경연 등을 통해 단합 및 친목을 도모했다.

“교대생들, 왜 총선거 투표 않나” 학생들, 선거참여 의견 엇갈려

학생회 “의견수렴해 결정할 것”

현재 교육대학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 총선거 투표권이 없는 것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타 단과대학 학생들이 중앙자치기구 선거권을 갖고 있는 반면 교육대학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

교육대학 학생회는 중앙자치기구 총선거 투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윤정환(초등과학교육전공 3) 교육대학 학생회장은 “2008년 제주교대와 제주대가 통합한 이후 중앙자치기구에서 교육대학에 공식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한 적이 없었고 제한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중앙자치기구 투표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과도 의논해야 할 것이고, 제주교대 총동창회와도 얘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많은 문제가 얹혀 있는 복잡한 사안인에서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현명철(초등영어교육전공 3) 교육대학 부학생회장은 “우선 투표권 제안이 온다면 전공별로 소모임을 거친 후 총회를 열

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래도 교육대학과 국립대학이 통합한 첫 케이스이다 보니 우리가 하는 모든 통합과정이나 타 교육대학과 국립대학 통합에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승훈 총대의원회 의장은 “교육대학과 제주대학교가 통합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당장 총학생회 투표권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를 늘린다면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진(초등과학교육전공 2)은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투표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여민우(초등교육학전공 4)는 “투표권을 취하기 전에 2008년 통합 당시 반대했던 교대련의 생각은 어떤지, 총동창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굳이 중앙자치기구 총선거 투표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무역사업단, 국제유통산업전 참가

제품 홍보활동, 현장판매 벌여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단장 이용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사이공무역전시회관(SECC)에서 개최된 ‘베트남 국제유통산업전 및 프랜차이즈쇼’에 참가했다.<사진>

GTEP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협력업체인 (주)JEKISS(대표 정기범)와 한라바이오 메디컬(대표 송인권)의 제품



에 대한 홍보활동과 현장판매 등 활발한 수출상담 활동을 벌였다.

김수현씨 등 기계공학전공 전국대회서 대거 수상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대학창의발명대회 등서

김수현(3)씨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한 ‘전국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3 전국 공학페스티벌’ 행사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선 2개팀이

수상했다.

류현주(3)·황보동재(3)·양은성(3)씨로 구성된 ‘맨드롱’팀과 김지훈(3)·강승훈(3)·부광필(4)씨로 짜여진 ‘육지멸미’팀 등은 각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인 장려상과 입선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창준(체육학부) 교수

한국체육학회 공로상 수상

이창준(체육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 아ולם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 창립 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기념식에서 한국체육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제주도체육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세계환경과섬연구소

WEIS 국제저널 논문 공모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소장 고창훈 교수)는 내년 2월10일까지 세계섬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WEIS(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국제저널 4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원고 모집분야는 세계환경과 섬 연구의 인문사회과학 전분야와 연관있는 자연과학 분야다.

원고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A4 용지 20매(200자 원고지 120~150매) 정도이다.

문의·제주대 WEIS 편집위원회(전화 754-2318)

‘고순안 심방 본풀이’

탐라문화연구소서 발간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석준)이 10월 말 탐라문화총서 27호로 ‘고순안 심방 본풀이’를 발간했다.

이 책은 허남춘(국어문화학) 교수를 비롯해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의 원생들이 2011년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초등창의컴퓨터교실 운영

초등컴퓨터교육전공서 1월에

교육대학은 내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키우는 ‘초등창의컴퓨터교실 5기(운영책임 김중훈 교수)’를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으로 올바른 컴퓨터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 20명, 4·5학년 25명 등 총 45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부 사이트(http://ceerg.jeju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초등컴퓨터교육전공(754-4911)

■ 답사 현장 - ‘문화창조 Old & New’ 이증섭거리·왓종미술관

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 미술관광지로 각광

예술이 꽃피지 못한 제주에 최근 많은 예술인의 유입으로 제주 문화예술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문화창조 Old&New(제2주제-제주의 사람) 프로그램에서 이련 변화의 바탕이 된 사람들을 찾아갔다.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토요일 전은자 이증섭미술관 큐레이터와 함께 제주를 사랑한 이증섭과 이왓종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화가 이왓종

처음 남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이왓종 화백은 지금은 왓종미술관이 위치한 서귀포 정방폭포 옆 작은 집을 확실히 삼았다. 그는 혼자 작업을 하다 외롭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갔는데, 풀과 나무가 서로 피해주지 않고 자라는 것을 보고 작품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고 한다.

왓종미술관 내에는 현재 591점의 작품이 있다. 지금 굉장히 귀한 조선시대의 상여(喪輿) 조각이 132점, 직접 수집한 아프리카 조각이 156점, 이 화백의 원화 작품 53점과 도자기, 판화 등 250여점이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미술관에는 이 화백이 직접 지도하는 아이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따로 뒀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줘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는 아이들이 타인에게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친다. 또 작년 이증섭미술관에서 열린 유니세프 기금마련전에 3000만원을,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에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왓종미술관 건물은 이 화백이 좋아하는 조선시대 이조백자를 닮았다. 한만원 건축가와 스위스 건축가인 다비드 무를로에게 그 모형을 주며 설계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건축가들과 3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공

간을 섬세하게 다뤘다. 2층 남쪽으로 나있는 정박에는 정방폭포와 서귀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다. 또 맑은 날에는 자연광만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 곳곳에는 제주만의 모습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다. 정원에 있는 소나무와 채소는 ‘우영’ (밭)을 볼 수 있다. 건물 밖에서 바라본 미술관은 마치 이 화백의 그림처럼, 돌과 나무, 조각 등 수 많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의 작품처럼, 미술관에도 그의 배려가 묻어 있다.

왓종미술관, ‘나눔과 비움’의 공간

이증섭미술관, 서귀포 문화의 거리 구심체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미술의 꽃’ 활짝

서귀포 문화예술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증섭 거리

다음 장소인 이증섭거리로 향했다. 한바탕 비를 촉촉이 머금고 난 거리는 사람들이 이증섭거리 특유의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하며 거닐고 있었다.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종년 아저씨의 하모니카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적셨다. 이증섭미술관을 중심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증섭미술관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 탐방, 서귀포문화예술디자인시장 운영과 함께 아트마켓,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거리 공연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증섭거리가 점차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증섭거리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에는 제주가 좋아 물에서 건넌 작가들이 예술 창작에 한창이었다. 서귀포시는 2009년부터 1년 장기임대로 6명과, 6개월 단기임대 2명에게 무료로 작업공간을 내주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에 정착하려는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따로 얻어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스튜디오 1층에는 작가들이 공예공방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강습을 하고 있다. 토요 일과 일요일 이틀간 열리는 작가의 산책길 프로그램 때문에 문화예술시장과 거리 공연

회 작가들이 기획전을 열고 있다.

변변한 미술 재료가 없어 겹종이 등 그럴 수 있는 도구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 이증섭. 다음으로 이증섭이 살았던 거주지와 그를 기리는 이증섭미술관을 찾았다. 그는 한국전쟁 중 부인과 다섯 살과 세 살배기 아들들을 데리고 제주에 피난을 왔다.

1.4평의 집에 살며 피난 생활의 어려움 속에도 이증섭은 가족과 어느 때보다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이증섭의 서귀포 시절은 불과 11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귀포를 주제로 한 좋은 작품을 여러 점 남겼다. 그에게 있어 서귀포는 인생과 작품에 있어 새로운 길을 제시한 중요한 곳인 셈이다.

이증섭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은지화(銀紙畵)이다. 담배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싸놓은 은지에, 송곳같이 뾰족한 물건으로 선을 그려서 스케치를 한 다음 물감이나 먹을 바르고 난 뒤 닦아내면 흡이 파인 곳에 흡수가 돼 그림이 된다. 이증섭의 은지화에 그린 사람과 개는 서귀포 자귀리 해안에서 직접 가서 잡아서 보고 그렸다. 이증섭은 개를 생각하면서 가족을 떠올렸고 그들과 함께 바다에서 개를 잡아서 놀던 것을 상상한 듯 했다. 개와 바다가 그려진 은지화는 이증섭의 가족과 그들이 사랑했던 서귀포를 담고 있다.

전시실에는 1951년부터 6년 동안 이증섭이 그린 엽서가 있었다. 이 엽서는 1942년부터 그의 부인 이남덕 여사와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주고 받았던 것이다. 엽서에도 어김없이 파도와 물고기나 그려져 있는데 파도를 타면서 노는 두 사람을 통해 서로 함께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있다.

미술관에서 젊은 이증섭 화가와 이남덕 여사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만날 수 있



9일 서귀포시 이증섭거리에서 하모니카 연주자가 길거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위) 왓종미술관에서 전은자 큐레이터가 이왓종 화백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었다. 이증섭 작가는 젊은 시절 집안이 유복했고 키도 커 귀공자처럼 생긴 모습이었다. 이증섭이 젊었을 때 그를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에게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혼자 제주도에 남아 일본으로 떠난 가족을 그리워 했다. 죽기 전 그린 이증섭 작가의 자화상은 지금은 미술관에 복사본이 전시돼 있다. 그가 표현한 서른아홉의 이증섭은 그 나이가 만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노쇠해 있었다. 그림 밖에 그리지 못한 그는 사치를 위해 한 일이 없으며 자책에 빠져 살다 생을 마감했다.

강경태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두 10개의 강좌와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 현장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 원인은?

세계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세계

최 종 학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세계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난지 4년이 지났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995년을 기준으로 2006년까지 미국 주택 가격이 매년 평균 15~16%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오르다 2007년에 최고 정점에 달했다가 다음해 주택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미 주택가격 왜 폭등했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가격 상승의 조건은 수요증가와 공급 감소이다. 수요증가의 결정요인은 인구, 가구 수, 소득변화 등이며, 공급 감소의 결정요인은 신규 주택의 완공 수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수요가 증가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인구와 가구 수는 연평균 1% 미만의 미미한 성장세였다. 소득수준의 변화도 없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신규 주택 건설 수는 매년 200만대 수준이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요인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구매자의 폭발적 증가가 주택가격 폭등을 불렀다. 신규 구매자들은 도심 공동주택에 사는 월세 불임의 저소득층이나 대학가에 살던 대학 졸업자이었다. 이들 신규 구매자들은 교외의 주택을 대거 구매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코제가 많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쿠바계 등) 등 이민자 주거지의 가격이 폭등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0년간 가격 상승률이 약 3배였다. 다른 지역은 약 1.5배 상승했다.

겨우 월세 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폈다. 저소득층과 이민자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다. 클린턴 정부는 이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과감한 자금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그 방법은 부동산 담보 대출회사를 설립



“국가 경영은 기업 경영, 가정

경영과 비슷하다. 수입보다

과다한 규모의 지출을 계속하면

수년 이내 파산하거나 상당한

위험을 겪게 된다”

해 거의 무료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소득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대출을 해줬다. 그것도 집 가격의 110% 수준이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2기 집권기인 1990년대 후반에 주택 수백만 채가 팔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그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던 대출자들이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할 수 없게 되자 서브프라임 위기가 시작됐다.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자 매물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2008년 당시 수백만 채의 집이 매물로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집값이 반 토막 났다. 결국 시장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 자금이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마침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더불어 금융위기로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2008년 가을,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5개가 줄줄이 망했다. 보통 회사의 부채비율이 200~300%를 넘으면 위험한 회사라고 하는데 이들 회사는 2000~3000%였다. 부시 대통령에서 오바

마 대통령에 이르며 급한 불은 껐다. 부시 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금융 법안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바마 정권은 대규모 지출 확대 정책을 폈다.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와 의료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집권 후 3년간 세수는 55~60임에도 지출은 100이었다. 미국의 국가 채무는 그리스보다 약간 낮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달러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안에 달러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지출 축소 또는 증세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지금 그대로 1%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비판적인 입장은 세수 증가, 지출 감소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세계 경제는 아주 어렵고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위기도 파장이 만만찮다. 우리나라의 국가성장률이 3%에 이르는데, 매우 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내수 확장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위기상황인데, 한국이 그래도 성장을 유지하는 비결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지 않아서다.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과의 수출 의존도가 20%를 넘다가 지난해 11%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3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원과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것이며, 기술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 독일, 일본으로 생각한다. 국가의 경영은 기업의 경영, 가정의 경영과 비슷하다. 수입 보다 과다한 규모의 지출을 계속한다면 수년 이내에 파산하거나 상당한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실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김 봉 정 /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시대다. 머릿속의 추상적 가치를 알기 쉽게 대중에게 설득하는 능력이 경쟁력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꿈을 제시하고 기업인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프로젝트를 적절히 제안한다. 존경받는 리더일수록 꿈·희망·미래가 남을 추상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대중을 설득한다.

프레젠테이션이 ‘무기’인 시대

프레젠테이션(PT: Presentation)이란 말 그대로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청중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그 내용을 이해시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사회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홍보뿐 아니라 구직을 위한 면접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제품발표회, 사업설명회,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제안서, 업무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기획, 발표자료 디자인 및 제작, 발표 어느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수업도, 발표도, 과제도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수업도 못 듣고, 학점도 잘 받을 수 없다. 더구나 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본다. 그래서 못하는 대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다.

프레젠테이션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촉박한 시간에 일일이 이미지 자료를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교수들이 만든 PT를 이용해 나만의 멋진 PT를 만들어낼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실제로 ‘기획’이다. 교수님이 갑자기 발표 과제를 내면 학생들은 대개 파워포인트를 먼저 켜다. 전문가들은 그러하지 않는다. 우선 기획할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성격, 발표시간 및 분량 등을 고려한 뒤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



“처음에는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이

서투르다. 평소에 끊임없는

‘읽기’와 ‘쓰기’를 통해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테이션의 틀을 잡기 위한 스토리보드 작업과 제작 전략을 구상한다.

전체적인 틀이 기획되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슬라이드를 어떠한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제작할 것인지들 스토리보드에 구체적으로 그려 넣어 시안을 작성하고, 수정·보완한다. 이를 토대로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이나 내레이션 등을 넣어 내용을 부각시킨 후 시연을 통해 완성하게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네 가지 요령이 있다. 주제에 어울리는 색상 사용과 가독성이 높은 폰트 사용, 다이어그램의 활용, 키워드 활용 등이다. 우선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색의 사용은 ‘무지개를 띄운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만큼 다양한 색상의 적절한 사용이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하는 기업에서 기업의 CI에 어울리는 색을 선정해 전체적인 색감의 톤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가독성이 높은 폰트의 사용이다. 폰트의 선택과 더불어 자간과 간지의 선택도 중요한 요

소다. 폰트는 한글의 경우 HY견고딕, 헤드라인M, HY올림포, 윤고딕, 아이리스, 산돌고딕이 가독성이 좋고 간결하게 보인다.

또 일반적인 내용은 고딕체, 감성적인 내용은 명조체를 사용하면 좋다. 프레젠테이션 기획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적절한 시각효과를 위한 레이아웃이 중요하다. 또 서술형 문장을 명사형 문장으로 바꾸며, 부사, 형용사 등의 수식어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므로 등의 접속사는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다.

많은 이들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리허설’을 간과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논리성’과 ‘표현성’을 중요하다고 꼽는다. 발표에 급급한 나머지 리허설이 중요한 줄은 알아도 막상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5분 발표에 고작 리허설에 투자하는 시간이 30여분 밖에 안된다. 대본 프린트하고 현장에서 대충 때우는 것이다. ‘제스처’의 중요성도 못지않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유명한 사람들은 이미 실력이 검증됐기에 사람들이 안심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마련이다. 두 명사의 공통점은 손바닥을 먼저 보여준다. 신뢰를 드러내는 제스처이다. 발표를 마치고 청중의 가슴 속에 남는 한 마디는 무엇인지 미리 염두에 뒀다 한다. 마무리 과정에서 요약하고 반복해서 개요를 다시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프레젠테이션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디자인’도 몇 가지 팁만 알면 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PT를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투르다. 평소에 끊임없는 ‘읽기’와 ‘쓰기’를 통해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신문과 책 등을 많이 읽어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집의 DB화로 동아시아학 연구 선도해야

학술기고 동아시아학 연구와 한국문집



정창원
사학과 교수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중국의 한자(漢字)를 도입하여 생활하였고,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제 분야의 기록을 한자로 남겼다. 그 결과 전통시대 기록된 개인적 문집(文集)도 한문(漢文) 문장으로 남기게 되었다. 한문으로 기록해 놓은 조상들의 문집은 개인의 기록이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학적·역사학적·문헌학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문집은 한국인의 사회·생활·역사·문학·철학 등의 의식이 잘 드러난 생생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역사는 지나간 일을 기록한 것 그 자체이다. 이러한 기록물에는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같은 방대한 자료는 국가가 기록한 것으로서 역사의 근간이 되는 1차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의 방대성이나 역사적 가치는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게 입증된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관찬사료(官撰史料)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관찬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서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또한 공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자료들이 이른바 2차 자료들인 개인 문집들이다.

역사에서 2차 사료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왔다. 국가 통치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거나 혁명을 일으킬 경우 그 주도세력들이 역사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유리하게 서술해 온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것은 자칫 왜곡된 역사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2차 사료의 존재는 그러한 역사적 왜곡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의 기록과 해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바로 이러한 2차 사료의 핵심에 있는 것이 전근대(前近代) 시기의 경우 개인 문집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학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이다. 한자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기록하였고, 국가 위정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문자로 남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후대의 자손들에 의해 활자화됨으로써 오늘날 많은 문집들이 전해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문집은 經·史·子의 경우처럼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체계를 잡아 쓴 책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글을 모은 것을 지칭한다. 한 개인의 저작물을 주제별로 엮은 단행본이라기보다 저작물을 모두 망라한 개인 전집과 같다. 문집은 다양한 글모음이기 때문에 經·史·子에 비해 주제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그 집다함이 한 개인의 인생관과 사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문집은 대체로 본인이 죽고 난 뒤 후손들이 축친(族親)이나 향당 유림(儒林)의 의견을 듣고 경비를 모아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집의 체제는 특별한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문제별로 편집되었다. 문집에 실린 내용은 저자가 평생 어떤 인생관과 학문관, 그리고 시국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연구와 사상사 연구 및 교양사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집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위정자들이나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문학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식자 계층들이다.

조상 문집은 문학·역사학·문헌학적 가치 매우 커

제주대, 한국역대문집총서·연행록전집 활용 문화교류

국제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통해 대외에 역량 과시

대학당국의 과감한 인력·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조선 건국의 핵심적 역할을 한 삼봉 정도전이나 조선과 중국의 외교 업무를 도맡아 진행한 정인지, 서거정, 그리고 조선 중기 개혁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정암 조광조, 한문학의 미려한 문장을 남긴 이석의 문집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은 문집은 그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집의 조사와 영인 작업, 나아가 번역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은 한국학의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 대한 풍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보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사(當代史) 연구와 한국학의 대중화, 나아가 동아시아학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에 지대



2012년 6월 제주대학교는 홍콩시태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와 미국의 UC Berkeley대학교 공동으로 동아시아 문화교류 연구에 착수했다.

한 영향을 미친다.

문집자료의 수집과 색인작업을 거쳐 지금까지 나온 관련서적으로는 윤남한의 『한국문집기사종람유별색인-잡저기설류기사색인(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雜著記說類記事索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4·6배판, 2373면)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사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위의 책조차도 전 10권으로 간행되어야 할 『한국문집기사종람유별색인(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의 첫 책에 지나지 않았고, 후속작업은 30여년이 지난

각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동아시아학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로써 한국에서 출간되어진 한적(漢籍) 자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이들 자료의 정리 작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홍콩시태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와 우리 제주대학교 및 미국의 UC Berkeley 대학 역시 『한국역대문집총서』와 『연행록전집』을 활용한 동아시아 문화교류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들 대학들은 『한국역대문집총서』의 색인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에 제공되기 시작하여 언론 및 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방대한 국제학술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y Newsletter, Issue No. 13, 『한라일보』, 2010년 5월 15일, ‘제주대 박물관 국제학술 교류’ 기사를 비롯한 중화권 주요 언론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매체의 소개 기사를 통해 관련 사실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 문집의 목록 색인은 조상들의 사상과 정신적 유산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문화 민족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상들의 문집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그 가치를 자리 매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며, 그 결과물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산이 될 것이다.

6,000종이 넘는 우리 조상들의 문집을 이제 드러내 알릴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업은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문집의 수집만 해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 문집 하나하나의 표제를 찾고 이를 입력하는 데도 막대한 인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학문집의 정리는 동아시아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작업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해양거버넌스 구축 통해 갈등 해소... ‘힘’이 아닌 ‘법’에 의해 분쟁 예방돼야

기고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 문제



김부한
법학과 교수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동아시아 해역에는 황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오호츠크해 등 5개의 바다가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하면 동아시아 해역은 일종의 ‘반폐쇄해’에 해당하며, 많은 연안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몇 개의 좁은 출구에 의하여 대양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UNCLOS에 따라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12해리의 영해를 비롯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선포하고 있으나, 마주보는 연안국들 간의 거리가 대부분 400해리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은 물론 최대범위가 200해리로 정해져 있는 EEZ의 경우에도 합의에 의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EEZ나 대륙붕은 국가주권이 인정되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양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안전 및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관할권 및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기 위한 연안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는 일본의 북방도서, 조여대/첨각열도, 독도, 그리고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도서 등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도서들이 많이 분포되고 있어서 연안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역 내 갈등 내지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경우도 비밀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로부터 서남방으로 149km(81해리), 중국의 동도(童島)로부터는 북동쪽으로 247km(133해리)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중암초’로서 해양법상 ‘섬’은 물론 간조 시에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간출지(干出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어도는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해, EEZ 또는 대륙붕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하거

나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기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경제적, 해양과학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도 크게 주목해 왔던 수역이다.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중 간에 EEZ나 대륙붕의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관할수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해저지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에 이를 자신의 관할수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경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UNCLOS의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을 자신의 EEZ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양국 간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시에도 그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 간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해야만 하는 ‘관련 사항’이나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중간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부합하는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하여 중국보다 우리나라 쪽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당연히 우리의 관할수역에 속한다고 본다. 반면에 중국은 한·중 양국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의 형성과정, 해안선의 길이 및 해안지형 인구 등을 일종의 ‘관련 사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션스 위츠호텔에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경철)과 (사)이어도연구회(이장정 고충석)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세미나는 김부한(법학과) 교수의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정’으로 내세우며 ‘형평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EEZ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EEZ 자체가 특히 ‘거리개념’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획정 시 고려해야만 하는 ‘특별 사정’이나 ‘관련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거리(중간)선’이 가장 합리적인 경계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대항국 간 거리가 400해리 범위 이내일 경우는 해저의

시청자 주권과 지역지상파방송

지역방송으로 도민의 친근한 벗 돼야



지난 10여년간 지역지상파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지역방송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왔다. 사진은 제주MBC, KBS제주, JIBS제주방송 전경.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가? 아니면 방송프로그램의 소비자로서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가? 분명한 점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시청행태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방송에 담고자 하는 ‘시청자 주권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청자 주권의 개념은 공공재인 전파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시청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여론형성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방송의 공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자의 요구가구체화되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방송법 제87조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방송법상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장치로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3년여 간에 걸친 제주MBC 시청자위원 활동은 이러한 시청자 주권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시청자위원을 시작하며 관심을 둔 것은 시청자 주권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며, 시청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방송사가 시청자위원의 의견 제시와 시청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제주지역 지상파방송은 제주MBC, KBS제주, JIBS제주방송 등 3곳이다. 지난 10여년간 지역지상파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지역방송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왔다.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경제의 침체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

는 반면에 새로운 방송 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서울 중심의 우리 방송 현실에서 지역방송은 진작 존폐의 위기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지상파방송이 도민의 여론을 대변하면서 지역의 환경 감시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의 커다란 한 축을 해내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뉴스와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공 토론의 장을 마련해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역할, 광고를 통해 지역 내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지상파방송은 현실적 어려움을 뒤로 하더라도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과 현장을 생생히 담아냄으로써 진정한 지역 밀착형 방송이 돼야 한다. 도민이 필요하고 필요한 방송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청자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밀착형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도내 정보와 화제를 생생히 전달하고 시사 및 의식성 아이템을 강화해 도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한다. 발 빠른 현장접근을 통해 도내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 속에도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컬러 콘텐츠를 키워나가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은 그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다매체·다채널로 대표되는 융합 미디어 시대에 지역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과감한 노력과 지역시민의 활발한 참여, 지역 정치·경제·사회의 폭넓은 협조,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을 중시하는 인식에 바탕을 둔 강력한 지원 방안 등이 절실하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한국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를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통하여 해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시 이를 우리의 관할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 승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해양 갈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역대 국가들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해양거버넌스’(regional maritime governance)를 구축하고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해양갈등 및 분쟁이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역대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주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자

기고 섬 바람으로 문화의 꽃을



오 순 희
간드락소극장 대표

문화예술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 이해하기 어려운 것, 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표현 등 쉽지 않은 것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은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미래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농사와 같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농부의 마음을 ‘콩 세알’로 표현 한다. 콩 세알을 심어 한 알은 땅속 벌레에게, 한 알은 하늘 위 곤충이나 새들에게 주고, 나머지 한 알은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다. 먹을 거리를 모든 생명과 나누는 마음, 희망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 농부의 직업의식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아름다움, 사랑, 정의를 표현하기 위해 고뇌하는 것이 창작하는 예술가이다. 이렇듯 농사와 예술이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더라도 문화예술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우리들의 삶과 생활 속에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하게 깔려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화에 술이라 하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또한 예술의 경험이 없다면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문화와 관련된 용어는 구분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음으로써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긴다. 바깥 생각해보면 예술가들에 따라 표현이 일반적인 것에 의해 대중들이 불편하였을 수도 있다.

자유로운 표현, 예술 혼이기에 대중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술가가 의도한대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소통을 원한다면 예술가들 또한 예술과 일반 대중들이 일상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예술가들은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한 작업을 하고, 대중과 예술가, 예술가와 예술가를 연결하는 문화 유통의 기획자, 공간은 작품 선별과 중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대중, 예술가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겠으나 서로 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어찌보면

더 대중적인 것과 순수로 장르가 나뉘고 작가가 지극히 개인적인지, 대중적이고자 하는지에 따라 일반인들의 관심과 접근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요즘 들어 변방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 섬에 다양한 바람이 불고 있다. 도시생활에서 탈 하고자 하는 일반 이주민이 늘어가는 가운데 ‘문화이민자’라는 단어가 사용될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좋고 나쁨도, 서로간의 많은 오해도 갖고 있으며, 서투름도 있고, 품고 소통하려는 의지도 많아 보인다.

우리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여유를 갖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섬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문화이민자’들은 섬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섬 사람들은 ‘문화이민자’들에게 귀를 열어주고 그들의 시각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로 뻗어나간 영화 ‘지슬’은

모방·흉내보다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야 가치 있음 보여줘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으로

문화소통기회 확대해야

그동안 변방의 섬, 소외지역으로 외면당해 왔던 제주는 축복받은 섬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작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생산의 장이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예술가들이 올 수 있는 곳, 예술적 실험이 가능한 곳, 예술가들도 행복해지는 곳, 더불어 지역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고 어울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은 문화예술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살 길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을 밭고راث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예술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하며 우리의 기초는 지역적, 전통적, 인문적 정신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본다.

좋은 예로 얼마 전 우리 섬에서 섬 사람들이 만든 섬 이야기 영화 ‘지슬’이 있다. ‘지슬’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염려도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보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덕에 화려하고 대단한 수상경력이 생겼다.

특히 영화계에서 ‘선댄스 영화제 그랑프리’라 하면 꿈의 수상이다. 제주 섬으로 그랑프리 트로피를 가져오기 했으나 이 또한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생소하기도 해서 축



간드락소극장은 2004년 개관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드락소극장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하의 판파레는 조용하게 끝났다. 아픈 이야기이긴 했으나, 섬 안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어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거슬러 이 영화를 만든 그들은 문화 불모지인 섬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문화예술에 소외당했던 서러움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시도의 창작을 해왔다. 세 명의 젊은이가 재미있게 즐기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제주시청에서 거리공연을 시작했다. 거리에서의 많은 만남으로 자신들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함께했던 외부 작가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의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그들은 술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도 모방을 한다거나 흉내를 내지 않고는 자신들 주변부를 둘러보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 외부로 알리는데 힘써왔으며 외국에까지 초청되어 순회공연을 하는 등 현재 진행형인 그들을 이것에 비유하고 싶다.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는 심은 지 4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뿌리가 땅 속으로 멀리 뻗어나가 5년째가 되어 일단 순이 돋으면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나 뺨뺨한 숲을 이룰 정도로 무성해진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미래를 준비하고 뿌리를 가꾸면서 때가 되면 힘차게 뻗어 나가는 ‘모소’를 통해 준비하는 시간을 맞서는 안된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농부가 땀 흘리듯, 예술가들이 고뇌를 하듯, 문명화된 속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애정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창조적인 생각과 시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 지적, 감성적 가치를 높이며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유통 본부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 문화기반 시설이 약한 소외지역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간드락소극장’은 2004년 개관된 순수 민간 소극장이다. 그 당시 소극장을 준비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모두 ‘미친 짓’이라 했다.

그러나 2007년 작품 하나가 성공적으로 관객을 돌려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제주시내에 소극장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이레, 미에랑, 오이, 간드락소극장까지 지금은 4곳이 각각의 특색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간드락소극장’은 2013년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올렸고 작품을 위해서라면 무대바닥을 파내기도 하는 등 실험적인 공간이기도 한, 100석 규모의 작은 소극장임에도 북한문화공간으로써 제주도 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문화공간으로써 공연자들에게 좋은 무대였지만 현실은 경영난이 따르고 지금의 장소에서 옮겨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발걸음 해온 관객들이나 예술가들에겐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지만 추억의 장소로 묻히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예를 쓰고 있다. 정말로 소극장이나 극단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심시일반의 후원 및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돈벌이가 아니라 가치이다. 누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진정성을 이야기하곤 한다. 문화의 불모지라 하는 섬 제주에서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올 수 없다고들 한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말하는 ‘동네심방’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변방의 섬’이기 때문일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서로가 진정한 소통을 한다면 제주 섬 바람으로 풍요로운 문화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섬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7> ‘도서출판 각’ 박경훈 대표

“도전정신 가슴에 품고 뛰어라”

“대학생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해야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 도서를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박경훈(52)씨는 삼도2동에서 도서출판 ‘각’을 15년 동안 운영하며 제주와 관련한 인문학과 고전 관련 도서를 100여권 이상 발간했다. 또한 출판사 옆 작은 공간에 북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 외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 공공미술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제주시청의 벽화, 성산포의 ‘이생진 시비’, ‘갑마장길의 기억’ 등 제주 곳곳에 다양한 작품들이 녹아들어 있다. 또한 제주문화와 관련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씨는 현재 제주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 미술교육과(현 미술학과) 동문이다.

“처음에 도서출판 ‘각’을 만든 것은 제주도에서 책들을 어리석게 도외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인쇄해 왔어요. 제주도 예 제대로 된 유통까지 책임지는 출판사를 만들자고 생각하고 ‘도서출판 각’을 만들었습니다.”

박경훈씨

는 처음 큰 의미 없이 출판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열악한 상황서 15년간 출판사 운영

“문화를 경제적 논리로 봐선 안돼

학생들 인문학적 소양 갖춰야”

됐고 15년간 한결같이 운영 중이다. 출판사를 등록한 곳은 제주도내에 200여 개가 넘지만 대부분 인쇄소와 출판소를 겸업하는 곳이 많다. 제주도 현실상 출판업은 돈을 벌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등록을 해도 책을 출간하는 회사가 없다. 책을 꾸준히 발간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곳은 다섯 손가락에 꼽힌다.

“북카페를 만든 것은 책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해놓았죠. 북카페에서 문화예술 강좌나 인문학 강좌,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박경훈씨는 구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 ‘도서출판 각’을 삼도2동으로 이전하면서 북카페를 만들었다. 하지만 북카페를 찾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았다.

박씨는 제주 문화와 관련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제주문화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해 언론, 세미나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 있다.

“제주도 문화의 제일 큰 문제점은 문화를 경제적 논리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



요. 문화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는 생각이 강해요. 문화와 경제는 별개의 논리가 아닙니다. 문화를 잘 키우면 그만이 경제에도 뻗치는 것이지, 경제적 논리에 맞게 문화를 육성하는 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박경훈씨는 제주 행정이 문화를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한 결과물이 카지도 같은 돈을 벌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문제에 제주대 교수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인의 역할도 중요해요. 교수들이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많다. 제주도 현실상 출판업은 돈을 벌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박경훈씨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즘 학생들이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대학생들이 사회적 현실이 어렵다고 느끼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생은 많은 일에 부딪혀 봐야 해요. 늙어서 하려고 하면 자신이 할 줄 아는 것 외에는 하기 힘들어요.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지만 늙어서는 용납되지 않아요. 새로운 가능성이 많은 대학생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김동현 기자

「2013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글로컬 시대의 뉴리더 양성사업

학생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란 ?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전국 4년제 대학(200여개) 중 80여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2008년부터 6년 연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취업역량·국제화역량·학습역량 강화 등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 등록금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의 교육 사업임
- ◆ 2013년 사업비 : 3,305,000,000원
- ◆ 2013년 사업기간 : 2013. 3. 1. ~ 2014. 2. 28. (1년 단위)

● 2013년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내

1. 취업 역량

아래 프로그램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학생상담 시스템	학생상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적 상담 운영	신입생 2,500명	• 무료 상담	• 운영기간 : 연중 3회(1월, 6월, 10월)	취업전략본부 (754-2303~8)
경력관리 우수학생 지원	취업전략본부 경력관리프로그램 등록자 중 경력장수 우수자 장학금 지원	경력관리프로그램 등록자 170여 명	• A급 50만원×8명 • B급 30만원×140명 • C급 20만원×20명	• 대상자선정 및 선발 : '13.12월 중	
취업동아리 지원	취업동아리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	1~4학년	• 동아리별 연 200만원 이내	• 운영기간 : 연중	
취업캠프운영	IBK 취업캠프, KT&G 취업캠프, 영아능력향상 취업캠프, 고학년 취업캠프	2~4학년 캠프별 40여 명 내외	• 항공로 및 경비비용 지원 (자부담 3만원 내외)	• 운영기간 : '13. 3월 ~ '13. 8월, 12월 - KT&G 취업캠프 : '13. 8월, 12월 - 영아능력향상 취업캠프 : '14. 1월 - 고학년 취업캠프 : '13. 11월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	대일 케네기 리더십 트레이닝(2회) : 학생경력관리 장수 우수자 우선 선발	전학년 약 60명	• 교육비 지원(자부담 5만원)	• 제1기 : '13. 4월 ~ 6월 • 제2기 : '13. 9월 ~ 12월	
대학생 아카데미 운영	Global Leadership Presentation 경진대회 Challenge, Global Leader! Social-Minded Activities	2~3학년 약 340명		• 제1학기 : '13. 3월 ~ 6월 • 제2학기 : '13. 9월 ~ 12월	
취업 교과목	진로와직업의세계 취업과직업의세계 취업과직업의세계	1~2학년 3~4학년 3~4학년	• 학점인정	• 운영기간 : '2학기(매주 화 6,7교시) • 운영기간 : 2학기(매주 월 6, 7교시) • 운영기간 : 2학기(매주 수 6,7교시)	
	미래생진로탐색과커리어설계 여대생창의적심사력과커리어개발	1~2학년 여학생 3~4학년 여학생		• 운영기간 : 2학기(매주 금 5,6교시) • 운영기간 : 2학기(매주 금 8,9교시)	
항공사(TOPAS) 아카데미	항공 예약 및 발권 관련 업무의 전문지식 함양 - 선발인원 : 30명	3~4학년	• 교육비 지원(자부담 2만원)	• 모집기간 : '13. 6월 • 교육기간 : '13. 7. 22 ~ '7. 26.	
서비스 컨설턴트 (CS Leaders) 아카데미	고객만족 서비스의 전문지식 함양과 CS Leaders 공인자격증 취득 - 선발인원 : 60명(2회)	3~4학년	• 1인당 교육비 40만원 지원 (자부담 3만원)	• 모집기간 : '13. 6. 5 ~ '13. 6. 22 • 교육기간 : '13. 7. 29 ~ '13. 8. 2 '13. 12. 18 ~ '13. 12. 24	
이동청소대학생교직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하는 이동청소대학생교직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기본과정, 실무과정 이수 지원	1~4학년 여학생 (대졸 미취업 학생 포함)	• 무료강좌	• 모집기간 : '13. 6. 26 ~ '13. 8. 21(매주 수)	
기업탐방 고불락	여학생들에게 관심분야의 기업을 실제 탐방함으로써 여성 취업에 대한 이해 및 벤치마킹으로 채용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게끔 지원	1~4학년 여학생	• 탐방비 지원	• 모집기간 : '13. 9. 16 ~ '13. 9. 27 • 탐방기간 : '13. 10. 17 ~ '13. 12. 29	
취업준비를 위한 선배 초청 특강 지원	학과 선배 초청 특강 실시 - 경험담 및 취업정보 제공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 모색	1~4학년	• 무료강좌	• 운영기간 : '13. 6월 ~ 12월(수시)	취업전략본부 (754-2303~8)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공직적격성 평가시험준비	행정고시, 외부고시 및 행정안전부 견습직원 1차 필기공직 적격성평가(PAST) 시험 준비 지원	고등교시 시험 준비생	• 예상문제 모의고시 실시 및 해설 강의, 특강 등	• 운영기간 : 연중	취업전략본부 (754-2303~8)
채용박람회 행사 및 우수기업 채용설명회 지원	3~4학년 및 우수기업 채용설명회 지원	3~4학년 및 미취업 졸업생 1,000명 내외	• 취업정보 제공	• 운영기간 : '13. 9월 ~ 12월	
청년 우수인재 취업 집중 지도	교육청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 직무 그룹별 맞춤형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인별 컨설팅 및 매칭 취업지도 취업 추천 및 알선	졸업예정자 교육생 100명	• 맞춤형 취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 운영기간 : '13. 3월 ~ '13. 12월	
기업 CEO 및 자영업자 초청 강연을 통한 취업 확대 프로그램	기업의 변화하는 채용 패턴 및 인재상에 대한 정보 제공 다양한 분야의 인사표준 특징을 통해 실무 전공자식 제공	취업교과목 수강생 및 전학년	• 학점 인정	• 운영기간 : - 제1차 : '13. 3월 ~ 5월 - 제2차 : '13. 8월 ~ 10월	
인적자원(HR) 개발 프로그램	기업 수요에 적합한 업무능력, 성품, 사명감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	2~4학년 600여 명	• 무료 강좌	• 모집기간 : '13. 7~8월 • 교육기간 : '13. 9월 ~ '14. 2월(매주 토 9~18시)	
상시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위한 취업 컨설팅트 운영	단과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취업자문평가를 통한 경력 관리상담, 진로 및 취업정보제공 및 관련 상담 실시	3~4학년 및 미취업 졸업생 1,200명	• 무료 상담	• 운영기간 : '13. 3월 ~ '14. 2월	
진로설정을 위한 인적성 검사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취업준동 유도를 위한 인적성 검사 실시	1~4학년	• 무료 검사 및 진단	• 상시운영	
도입우수 기업 취업활동 지원사업	도입 우수기업 채용동향에 대한 정보 습득과 기업 면접전형 참가자 경비 지원	4학년	• 항공로 실비 지원 • 면접 보고서 학교비 지원	• 운영기간 : '13. 3월 ~ '14. 2월	
도입기업 취업연수 지원사업	도입기업 취업연수 지원사업	4학년	• 월 90만원 연수금 지원 • 항공로 실비지원	• 운영기간 : '13. 5월 ~ '14. 2월	
해외인턴십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캐나다)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토익 650점 이상 - 전공제한 : 영어 및 사회·경영 계열 학과에 한함 - 연수내용 : 국내연수3주+해외연수3주+인턴십1주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중국)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학사-HSK 3급 이상 - 연수내용 : 여학생수8주(직무연수1주 포함)+현지 인턴십12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2. 2월 중 • 연수기간 : '13. 3월 ~ 8월	취업전략본부 (754-2303~8)
해외인턴십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학사-HSK 3급 이상 - 연수내용 : 여학생수8주(직무연수1주 포함)+현지 인턴십12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4. 1월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토익 650점 이상 - 전공제한 : 영어 및 사회·경영 계열 학과에 한함 - 연수내용 : 국내연수3주+해외연수3주+인턴십1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해외인턴십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학사-HSK 3급 이상 - 연수내용 : 여학생수8주(직무연수1주 포함)+현지 인턴십12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토익 650점 이상 - 전공제한 : 영어 및 사회·경영 계열 학과에 한함 - 연수내용 : 국내연수3주+해외연수3주+인턴십1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해외인턴십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학사-HSK 3급 이상 - 연수내용 : 여학생수8주(직무연수1주 포함)+현지 인턴십12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토익 650점 이상 - 전공제한 : 영어 및 사회·경영 계열 학과에 한함 - 연수내용 : 국내연수3주+해외연수3주+인턴십1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해외인턴십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학사-HSK 3급 이상 - 연수내용 : 여학생수8주(직무연수1주 포함)+현지 인턴십12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토익 650점 이상 - 전공제한 : 영어 및 사회·경영 계열 학과에 한함 - 연수내용 : 국내연수3주+해외연수3주+인턴십1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해외인턴십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학사-HSK 3급 이상 - 연수내용 : 여학생수8주(직무연수1주 포함)+현지 인턴십12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 선발인원 : 8명 - 지원자격 : 토익 650점 이상 - 전공제한 : 영어 및 사회·경영 계열 학과에 한함 - 연수내용 : 국내연수3주+해외연수3주+인턴십1주	2~4학년	• 학점인정 • 대학부담금 1인 200만원 지원 ※자부담 1인 150만원	• 신청기간 : '13. 3월 중 • 연수기간 : '13. 7월 ~ 12월	
대학(학과)별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전학년 및 미취업 졸업생 2,000명	• 취업정보 제공	• 운영기간 : '13. 6월 ~ '14. 1월	취업지원단 (754-4431)
창업강좌 및 동아리 지원	창업강좌 및 동아리에 대한 운영비 지원	1~4학년	• 운영비 지원	• 운영기간 : '13. 2학기	

교수시론

우리가 개성상인에게 배울 점



양정필
사회학과 교수

“

초창기 개성상인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조선 최고의 상인으로 성장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개성상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

기자칼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감 얻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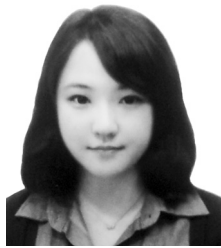
강수빈
여론사회부 기자

어 학과대표를 자원했고 덕분에 동기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상당수가 제주대를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두 떠밀려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비슷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 “제주대는 결국 지방대잖아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을 간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 자신은 패배의식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필자는 항상 그들에게 너는 지금까지 교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되묻는다. 그들의 대답 또한 정해져 있다. “제주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와 달라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불만이 가득한 동기들을 비롯해 수많은 신입생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제주대학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대학의 타이틀, 소위 ‘학벌’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면 대학생활은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밥이 아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교에서 정해준 수업, 담임선생님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학생활은 나 자신이 주체가 돼 진행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학교와 학과, 이수해야 할 학점과 수업 등,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살펴보거나 유익한 대외활동들을 이것저것 찾아 시도해 보자. 대학에 존재하는 수많은 혜택과 제도는 ‘참여율 저조’를 이유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지방대학은 소위 ‘메리트가 없다’며 투덜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 있다. 모든 조직은 능력 있는 20%와 하위 80%로 이뤄지며, 상위 20%들로만 구성해놓은 조직 또한 능력 있는 20%와 하위 80%로 다시 나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잘 생각해 본다면, 제주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회와 혜택을 불장근 커녕 찾지도 못하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간들 뭐가 변하겠는가. 이 글을 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면 억울해 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지가 옹서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자신은 지방대 학생이라며 스스로 목죄지 말고 편견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진정한 대학생이 되자.

독자기고

사라캠퍼스 도서관 효율성 힘써야



정하윤
초등유리교육전공 2

대학생들의 한 달 독서량은 평균 1.8권이라고 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대학생임을 감안했을 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양이다. 학생들은 과제를 위해서 전공서적을 읽기도 하고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기도 하며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 소설을 찾아 읽기도 한다. 그런데 실상 용돈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책값이 부담스러워 쉽사리 책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곤 한다. 나도 책을 소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러 권으로 꽤 있는 장편 소설이나 단 한 번만 읽을 것 같은 책들은 굳이 구입하지 않고 사라캠퍼스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다. 사라캠퍼스 도서관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부터 시작해서 소설, 자기계발서, 시집, 전공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서가 구비돼 있다. 또한 영화나 EBS교육 자료를 DVD로 볼 수 있도록 DVD전용 컴퓨터도 마련돼 있고 학생들이 과제를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프린트기도 있다. 하지만 이용현황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책을 읽기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간 시간에 책을 읽고자 도서관을 찾지

않.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조선후기가 되면서 개성상인은 채무 관계로 인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해결한 것은 물론 조선 팔도는 물론 중국·일본과의 삼각 무역을 통해 거부를 쌓은 상인을 다수 배출하면서 개성은 서울 다음으로 부자가 많은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개성상인이 조선 후기 조선을 대표하는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불리한 상업 환경, 내부 갈등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최적화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상업 관습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그 상업 관습들은 개성상인이 조선 최고의 상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 자본의 개성 침투를 저지하여 개성을 조선 대도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인이 상권을 유지한 곳으로 남게 하였다. 초창기 개성상인은 차선의 선택을 강요받고 또 불리한 상업 환경에 내부 갈등까지 존재하는 등 악조건에 놓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조선 최고의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보면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등문칼럼

스펙 쌓기에 시들지 말길



고봉기
토목공학과 05학번
한국마사회 제주 경주마
육성목장 시설팀장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끝마무리를 할 때쯤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대학 생활을 하며 있어 언제나 주 관심사는 취업이었고 실제로도 취업 스펙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해야 했을까, 좀 더 여유롭고 낭만적인 대학생살을 즐길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가 최선이고, 1등만이 살길이라는 어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스를 펼치는 것 같아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와 계획 등 모든 것이 그저 점수와 사회분위기에 의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얼 위해 살아오고 공부를 했는지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저 ‘남들이 아니까’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단연컨대 당신의 인생은 슬픈 삶입니다. 취업스펙을 떠나 조금만 둘러보면 스펙을 쌓는 것 외에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11월만 해도 총학생회 선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거철이라 시끌벅적해서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 365일 내내 자그마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과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는 학우들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자신들의 학과 혹은 단과대학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고 일일호프, 체육대회, MT 등 너무나도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입학한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뻐 점심시간이나 공간시간이면 빈 공간을 찾아 그림을 그리거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잔디밭 혹은 한라대 등에서 학생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찾기 힘들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동문 여러분, 좀 더 자신들의 대학 생활을 즐기세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20년 뒤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위치만 보고 자신들이 하고픈 것을 포기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실제 사회생활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산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대다수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이 없다는 통계를 있습니다. 일과 여가를 따로 분리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있을까요? 아직 우리 젊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조금에 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은 아직 시작이라고 하기에 너무 빠릅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000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2. 국제화 역량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영어우수 장학금 지원	계열별·등급별 영어 공인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방법: 경력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인증된 점수 - 선발인원: 신규자 450명, 향상자 150명	1~4학년 (휴학생 등 제외)	• 신규자 - 1등급: 30만원 - 2등급: 20만원 - 3등급: 10만원 • 향상자: 점수별 차등지급	• 선발: 1차('13. 10월 중), 2차('13. 12월 중)	학생복지과 (754-2053)
단기파견 지원	방학 중 단기 교류학생 프로그램(영어집중프로그램) 운영 - 지원자격: 우수신입생(우수선생), 토익 우수자 및 학부생 성적 2.7이상	우수신입생 및 영어영역 우수자 (1학년) 20명 내외	• 1인당 300만원	• 신청: '13. 11월 중 • 파견: 동계방학 중(6주)	
	한미학생회의 참가	학교대표자 3명 내외	• 1인당 300만원	• 신청: '13.3.1, 까지 • 행사기간: '13.7.3 ~ 7.31	
장기파견 지원	필리핀대학 장기파견 교류수학생 지원 프로그램 - 파견기간: 1학기 - 지원자격: 우리대학교 외국대학 파견 교류수학생 선발기준에 의함	지원자격을 부합하는 재학생 200여 명	• 자비: 300만원 • 가계곤란자: 500만원	(1학기) • 신청: '13. 10월 • 파견: '13. 3월 (2학기) • 신청: '13. 3월 추가신청: 8.2 ~ 8.6 • 파견: '13. 9월 (14년 1학기) • 신청: '13.9.3 ~ 9.12 • 파견: '14. 3월 ~ 4월	국제교류본부 (754-2198)
해외 교육실습	세계화 선도 교사 양성을 위한 해외 교육생 실습 - 실습인원: 30여명	교직과정 이수자	• EIU 무료교육 • 현지교육비 및 편도항공료 지원	• 모집기간: '13. 6월까지 • EIU 교육: 하계방학 중 • 실습기간: 동계방학 중	교직부 (754-2021)
테마별 세계 교육기행	교수 또는 직원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공 및 교양과목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현지에서 체험하는 학습·연구 활동 - 지원자격 제외: 각종 해외연수 7일 이상 수혜자 및 8학기 이상 등록자	1~4학년 20명 내외	• 아시아: 80만원 • 오세아니아: 150만원 • 유럽·미주: 200만원	• 모집기간: '13. 9. 9 ~ 9. 12 • 탐방기간: '13. 12월 ~ '14. 2월	학생복지과 (754-2041)
멀티미디어 온라인학습 프로그램	학습자에 의한 자율학습 제공 및 학습자의 영어 실력에 수준별 학습 가능	1~4학년 500명	• 사운드리버브라리실 무상 이용 - 영어자율학습 가능	• 오픈시간: (월~)9시 ~ 17시	
FLI 영어 역량강화 지원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자 중 우수수강자를 선발하여 수강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외국어특별강좌 중 영어강좌 - 지원인원: 500명	1~4학년	• FLI 영어강좌 수강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학부 재학생에게 수강료 일부지원(50%) • 우수수강자 대상 무료 모의토익	(5차) • 모집기간: '13. 10. 14 ~ 10. 24 • 강좌기간: '13. 10. 28 ~ 12. 6 (6차) • 모집기간: '13. 12. 16 ~ 12. 26 • 강좌기간: '14. 1월 ~ 2월	외국어교육원 (754-2291)
	모의 토익 경시대회 입상자 상금 지급 - 선발인원: 15명 이내 - 선발기준: 시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외국어교육원 강좌 1회 이상 수강자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발	1~4학년 30명	• 최우수: 20만원 • 우수: 15만원 • 장려: 10만원 • 노력: 5만원	(제1회) • 시험일시: '13. 5월 (제2회) • 모집기간: '13. 10월 중 • 시험일시: '13. 10월 중	
영어회화 캠프	학생수준별 영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방학 중 운영) - 선발인원: 80명 이내 - 선발기준: 교양영어 100 단위수준 또는 토익 490점 이하인 학생	1~4학년	• 출석률 85%이상인 학생에게 참가비(10만원) 전액 면제	(하계방학) • 운영기간: '13. 7월(4주) (동계방학) • 모집기간: '13. 11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4주)	

3. 학습 역량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문화평정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및 글로벌 감각 향상을 위한 윤니버스 형태의 초청 강좌 및 공연	1~4학년	• 학점인정	• 신청기간: 수업신청기간 • 운영기간: 1학기, 2학기	
재학생 학습과정 분석	재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만족도,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의 실태 파악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	1~4학년 3,000명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학습과정 분석 진단	• 설문기간: '13. 11월 ~ 12월	기초교육원 (754-2036~7)
재학생 학력 진단 프로그램(수학) 진단평가	대학기초수학 콘텐츠 및 평가시스템	1~4학년	• 온라인 무료강좌 및 진단	• 운영기간: 연중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학과 및 교수 단위의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설계운영 - 전공 학습 결손이 초래되는 특정 교과외 기초 영역	1~4학년 반별 20명 내외	• 무료강좌	(동계방학) • 모집기간: '13. 12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 ~ '14. 2월	
	기초학력(글쓰기, 수학) 상담실 운영	1~4학년	• 멘토 상담 및 기초학력 진단	• 운영기간: 연중	
느그녀영 학습 동아리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협동학습 동아리 - 동아리운영: 교과영역학습, 교과외의 영역 학습, 학교생활 - 참여자격: 저학년 및 자유영역 - 지원대상: 재학생 중 6~6학년으로 구성된 그룹 - 결과보고에 따라 우수팀 시상	1~4학년 150명	• 활동장려금 팀별 35만원 (인원수에 따라 조정)	(2학기) • 모집기간: '13. 8. 26 ~ 9. 4 • 운영기간: '13. 9. 16 ~ 11. 24	
모다들영 북적북적	재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배양과 학내 독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 모집대상: 일반자유, 교정강독 - 팀운영: 지도교수 1인4재학생 4~6인	1~4학년 85명	• 운영지원금 1인 15,000원 • 도서지원금은 실제로 지원 (1인 최대 6만원)	(동계방학) • 모집기간: '13. 12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 ~ '14. 2월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전략 워크숍(학습캠프, 학습백화회 운영) -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습문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기간: 수시 • 운영기간: '13. 5월 ~ '14. 2월	
	단과대학 학습법 맞춤형 워크숍 - 단과대학 학습법에 맞는 교육콘텐츠·교재에 맞춘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기간: '13. 9. 4(1차) '13. 10. 16(2차) • 운영기간: '13. 9월 ~ '14. 1월	기초교육원 (754-2036~7)
	외국인 유학생 학습법을 워크숍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의 학습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전략 및 한국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튜터링 제도 운영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기간: '13. 10월 중 • 운영기간: '13. 10월말 ~ 11월	
학습법 공모전	아리토로대 - 공모된 주제에 따라 예선과 본선을 진행하여 우수팀 선발	1~4학년	• 우수 시상 - 최우수(50만원), 우수(30만원), 장려(20만원), 스피커상(10만원)	• 모집 및 운영기간: '13. 11월 ~ 12월	
	우리리포트 - 2013학년도 전공 및 교양리포트(필 리포트 제외)	1~4학년	• 우수 시상 - 최우수(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10만원)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 창의적인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공유	1~4학년	• 우수 시상		
	테마로 여는 학습법 특강 - 교육인원: 주제별 150명 이내 주제별 공부법별 워크숍(火·공·비) - 교육인원: 주제별 25명 이내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 및 교육기간: 수시(매월 1~2회 운영) • 모집기간: '13. 9월 ~ '14. 1월	
	학습컨설팅 - 학습법에 대해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1 맞춤형 서비스	1~4학년	• 학습스타일 진단 및 1:1 맞춤형 학습컨설팅	• 모집기간: '13. 9. 16~(수시 접수) • 운영기간: 연중	
서포터즈 운영	학습공동체 모니터링 및 서포터즈 활동 - 모집인원: 10명 이내	1~4학년	• 지원금: 시간당 5천원 • 활동 인증서 발급 등	• 모집기간: '13. 5월 • 운영기간: 연중	
교육기부 프로그램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적 약자 교육기부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연계 재능기부 프로그램 학내 부속기관 체험 프로그램	1~4학년 50명	• 재료비 및 증식비 등 • 봉사시간	• 모집기간: '13. 12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 ~ '14. 1월	학생복지과 (754-2051)
문화창조 - old&new	재주문화 키워드 - 제주의 바다, 땅, 사람들 주제로 한 인문 강좌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1~4학년 40명	• 무료 강좌 및 체험 • 재탄생 시상	• 신청기간: '13. 9. 11 ~ 9. 25 • 운영: 강좌(9.27), 체험(9.28)	박물관 (754-2241)
	간호대학 영세소산인 건강관리 자원봉사 - 봉사인원: 70명 - 수혜인원: 제주 시내 재배시장 상인 약 1000여 명	간호대학 학부생	• 교통비 및 증식비 등 • 봉사시간	• 봉사기간: '13. 8. 20 ~ 8. 22	간호대학 (754-3742)
단과대학 특성화	교시대 공동 수업실기 경연대회 - 참가신청은 12월초로 제한, 학과(전공)별로 2팀 이내로 진행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2~4학년	• 총장상·도교육감상: 50만원 • 학장상: 30만원 • 장려상: 20만원 • 참가상: 10만원	• 모집기간: '13. 8월 • 운영기간: '13. 8월 ~ 9월	사범대학 (754-3202)
	International Summer School - 실제 미국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식 습득 등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부생, 교직과정 이수자	• 무료강좌	• 모집기간: '13. 8월 • 운영기간: '13. 6월 ~ 7월	

»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인터뷰 – 기기부터 선거운동본부

학내 성폭력 대책 마련에 최선

예방접종 지원병원 확대

여학생휴게실 밤 11시까지 개방

직접 발로 뛰는 여학생회 될 터

정·정승원 부·안은지

▶출마동기.
“어떤 일을 하면서 얻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춘걸고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총여학생회가 보완해야 할 점과 이뤄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입후보하게 됐다.

반면에 부입후보자는 학생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우의 입장에서 학생회가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괜찮은지 잘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경험자와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로건의 의미.
“여기부터라는 슬로건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와 ‘여기에서 불어라’ 두 가지를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총여학생회 활동이 선거운동본부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다. 총여학생회의 특색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불어라’는 말 그대로 학우들을 모아 이끌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총여학생회를 평가한다면.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슬로건에 맞게 청춘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한 것 같다. SNS를 통한 홍보활동은 괜찮았다. 또한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한 축제에 통해 학우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축제에서 판매하던 예코백, 텀블러 등이 늦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상품이 다 떨어졌다. 수량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총여학생회가 꼭 필요하냐는 의견에 대해.

“총여학생회의 존재 위기는 계속 언급되는 문제다. 처음에 총여학생회가 설립된 이유는 성차별 완화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권리신장보다는 여성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번 K교수 사건만 해도 빠른 대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너나들이국은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생각했다. 최근 있었던 K교수의 사건을 보며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설치하고자 한다. 우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나선 ‘기기부터’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정승원(환경공학과 3, 오른쪽)씨와 부입후보자 안은지(관광경영학과 2)씨.

리 대학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나들이 국의 설치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에 총여학생회가 참여해 심의하고자 한다. 심의 과정에 오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총여학생회가 들어가게 된다면 학우들의 의견이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우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많은 학우들이 건강증진센터와 여대생케어이개발센터의 역할을 잘 모른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양 센터를 학우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4·3 팔찌는 타 단체에서 진행했던 것이지만 그 취지가 좋아 일단 아라 학우들에게 알린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편리화는 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한국병원과 다나 산부인과 두 곳뿐이다. 제주대 병원은 물론 개인 산부인과들과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찾고 있다. 병원 측에서 원하는 인원이 채워진다면 현혈처처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학교에서 출장주사가 가능하게 할 생각이다.

여학생수면실을 시험기간에는 밤 11시까지 개방할 생각이다. 보안을 위해 시험기간에는 총여학생회에 사람이 상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합인업체 표시 공약이 타 학생회 후보와 겹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우들을 위한 공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생각이 같은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합인혜택 가능 업체에 합인업체임을 알리는 스티커 등을 가게에 부착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알리겠다. 타 학생회 후보와 혜택이 겹치는 곳이

있다면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

“항상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때 학우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발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책토론회나 인터뷰로 보이는 것.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직접 발로 뛰면서 오천 여학우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하고 싶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총여학생회가 되고 싶다.”

박소연 기자

» 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 출사표 – 당.신.의 선거운동본부

시대 변화에 맞춰 동아리 지원 확대

당당함·신뢰·의리 중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활동

정·고두현 부·김현두

안녕하십니까. 당당하고 신뢰받고 의리 있는 당.신.의 동아리연합회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 제주대학교 30대 동아리연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정입후보자 자연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부 3학년 고두현, 부입후보자 생명화학공학 3학년 김현두입니다.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에서 추구하는, 동아리연합회로서 중요시해야 할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당당함과 신뢰, 그리고 의리입니다.

우선 첫째 가치인 당당함은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함을 인지해서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와 연관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의 두 번째 가치는 신뢰로 이는 동아리연합회에 대해 모든 학우들과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폐쇄적이고



제30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나선 ‘당.신.의’ 선거운동본부 고두현(생활환경복지학부 3, 왼쪽)씨와 김현두(생명화학공학 3)씨.

한정적인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원칙에 분명한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추구할 가치는 바로 의리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동아리연합회라는 중앙자치기구가 학내 동아리와 동아리인들을 우선적으로 위한 연합회라는 점을

잊지 않고, 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동아리인들을 위한 복지와 불관사향 개선을 통해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과거에 비해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줄어들고 약화되었다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공문화시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아리연합회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동아리가, 학과와 대비되는 혹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학과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발전에 대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개인의 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홍보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발로 뛰어 제주대학교 내의 대학문화라는 커다란 축을 담당하는 자치기구로서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비유하여 출사표를 던지는 저희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하습니다. ‘by you(당신에 의한) for you(당신을 위한) and(그리고) of you(당신의)’ 동아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 영화속 세상 – 〈케빈에 대하여(We Need to Talk about Kevin)〉

지옥 속에서 숙명이 된 모성, 그리고 삶의 의미

영화 ‘케빈에 대하여(We Need to Talk about Kevin, 영국, 2011)’는 여행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던 에바(탈다 스윈튼 역)와 그런 그녀를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아들 케빈(이즈라 밀러 역)에 관한 이야기다. 에바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케빈의 존재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그가 성장하면서도 그 마음을 완벽히 펼쳐내지 못한다. 그런데 케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치 그녀의 마음을 간파라도 한 듯 에바를 증오하고 괴롭힌다. 그리고 그의 난폭한 반항 심리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으며 에바의 삶을 지옥으로 이끈다.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애정과 훈육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역설한다. 악한 인간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그 자신의 문제보다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점이 있다. 아무리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식이 직관적으로 인식했다 해도 단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는 드물다. 이것을 단순히 부족한 모성에 의해 후천적으로 생겨난 ‘악’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케빈에게는 태생적으로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대다수가 ‘선’한 감정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절대악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인간세계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에바의 심리를 시각화한 ‘붉은 색’에는 그녀의 자유분방한 열정, 쾌락도 담겨 있지만, 그것과 상반되는 피, 악함, 고통 같은 것들이 양날의 검처럼 공존한다. 즉 인

간의 감각과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에바의 강박에 가까운 모성(母性)이다. 그녀는 케빈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조차도 이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짊어지고 산다. ‘아들이기 때문에.’ 에바에게 그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하다. 아들의 악행을 대신 속죄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흔들리는 아들의 눈을 보고 그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그녀는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던 모성을 끝내는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단순한 모성애의 차원으로 귀결될 만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인간은 덧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들 무엇으로도 통쾌하게 설명될 수 없다. 이미 유한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원은 아닐까. 에바가 앞으로도 평생을 감내해야 할



영화 ‘케빈에 대하여’ 포스터

이 숙명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끝내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간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할 것이다.

김소영 기자

JDC대학생아카데미

머뭇거리지 마라, 청춘아

문의 064) 754 - 2306

•제주대 취업전략본부

VOD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b.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09.02 김한우 JDC 이사장
제주도개발리 환경보존,
우리의 지혜

09.03 오충철 소동태이너
OnlyOne한 꿈을 꾼라

09.10 김광연 공모전의 선
불꽃불꽃, 미쳐야 미친다

09.17 유지성 오세익이저
내가 수인이 되는 인생,
이렇게 될 것인가

09.24 김영하 작가

꿈을 이룬 내가, 오늘을 사는 너에게...

10.01 강태신 블랙박스 회장

10.22 최중학 서울대 교수
세계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세계

10.29 김보성 전설턴트
실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11.05 노광철 집치독 대표

11.12 손보미 작가
청춘 멘토링,
나만의 가득 만들기